제7장

한국 실학 연구

허종은

## 1. 머리말

이 보고서는 "2017년도 한국 학계의 유교 연구 성과 분석과 전망"의한 부분으로, 2017년도 한 해 동안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학술 논문 및 박사학위논문을 포함하여 '한국실학'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2017년 한 해 동안 발표된 한국실학 관련 논문의 목록을 수집하여 인물별, 주제별로 분류하고, 그 중 주요한 논문 몇 편에 대한 설명과 비평을 하면서 향후 전망에 대하여 간략하게 언급하겠다. 논문 색인은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학술지에 발표된 것으로 한정하였으며,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 등 데이터베이스(DB)로 제공하는 검색 기능을 사용하였다.

2017년도 국내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한국실학 관련 논문은 약 52 편, 박사학위논문이 약 6편으로 전체 약 58편이 검색되었다. 전체 논문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논문 제목을 크게 두 가지 분류 방식에 따라 나누어보았다. 첫째 인물별 분류, 둘째 주제별 분류이다. 인물별 분류에서는 유형원, 성호학파, 북학파, 실학의 집대성자로 알려진 정약용, 최한기, 기타 순서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주제별 분류에서는 첫째 경학, 둘째 철학, 셋째 정치 및 경제, 넷째 기타로 분류하였다.

# 2. 인물별 분류

한국실학 관련 논문들을 학파별로 분류하면, 유형원 10편, 성호학파 3 편, 북학파 4편, 다산 관련 31편, 혜강 관련 2편, 기타 인물과 주제에 대한 것이 8편이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다산 관련 논문이 가장 많고, 적지만 북학파와 성호학파, 최한기에 관한 연구도 꾸준히 계속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유형원의 학문세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점이 주목된다. 그리고 정약용의 학문과 베트남 유학자 레귀돈(黎貴惇)을 비교한 특집도 특이하다.

### 1) 유형원(柳馨遠)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만진초	17세기 한중 실학자의 교육개혁안 비교연 구-유형원과 황종희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3권	한국실학학회
2	임형택	17세기 문명적 위기의식과 실학-반계(磻 溪) 유형원(柳馨遠)의 문집 발간에 즈음해서	한국실학연구 34권	한국실학학회
3	정구복	반계 유형원의 학문세계와 그 영향	한국실학연구 34권	한국실학학회
4	김승대	반계 유형원의 가계 분석	한국실학연구 34권	한국실학학회
5	양승목	반계 유형원 초상(抄象) – 생애기록물에 대한 통시적 이해	한국실학연구 34권	한국실학학회
6	정용건	반계(磻溪) 유형원(柳馨遠)의 역사의식과 동 국사(東國史) 서술 구상-『반계잡고(磻溪雜 藁)』 소재 기록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4권	한국실학학회
7	손혜리	반계가 바라본 명청 교체와 명 유민	한국실학연구 34권	한국실학학회
8	조해숙	반계 유형원의 시조 한역에 대하여	한국실학연구 34권	한국실학학회
9	정성희	반계(磻溪) 경세학(經世學)의 계승과 과거제 개혁론	한국실학연구 34권	한국실학학회
10	이동희	부안지역 반계 유형원 유적보존과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한국실학연구 34권	한국실학학회

조선후기 실학파의 선하로 널리 알려진 유형원의 학문을 전체적이 면서도 다양한 시각으로 조명한 특집이 발표되었다. 실학의 역사적 의의를 17세기 문명적 위기의식에서 찾으면서 유형원을 조명하려는 논문부터 그의 학술을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그 영향까지 살펴본 연구, 유형원의 역사의식과 우리나라 역사를 서술하려는 구상, 과거제 개혁론, 황종희와 비교한 교육개혁론, 초상이나 가계 분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각에서 반계의 사상과 학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2) 성호학파(星湖學派)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최정연	성호 이익의 뇌낭설 수용 방식에 관한 검 토-성호의 사칠설과 『주제군징』의 뇌낭 설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3권	한국실학학회
2	최정준	실용과 과학에 기초한 성호(星湖) 이익(李 瀷)의 봉침육합(縫針六合)이론 - 「역경질 서(易經疾書)」의 선갑후갑(先甲後甲) · 선 경후결(先庚後庚)의 해석과 연관하여	한국실학연구 34권	한국실학학회
3	신채용	『성호전집(星湖全集)』 묘도문재(墓道文字) 를 통해서 본 이익(李瀷)의 남인의리(南人 義理)	조선시대사학보 80권	조선시대사학회

성호 이익을 다룬 논문은 3편이며, 성호의 서학과의 관련성을 논의할 때 연구되는 뇌낭설을 이번에는 그의 사칠론과 관련하여 연구한 논문이 있으며, 성호의 역학을 분석한 글, 그리고 성호의 남인 계통의 의식을 분석한 논문이 제출되었다.

## 3) 북학파(北學派)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현식	「열하일기」「심세편」, 청나라 학술과 사상에 관한 담론	동방학지 제181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	이경구 이예안	중화(中華) 해체의 두 가지 길-홍대용과 스기타 겐파쿠 비교 연구	한국실학연구 33권	한국실학학회
3	박현규	담헌(湛軒) 홍대용(洪大容) 화상(畵像)의 종류와 정본 선정에 관한 고찰	한국실학연구 33권	한국실학학회
4	현안옥	박지원 『연상각선본』의 개작 양상과 그 의 미	박사 <del>논문</del>	전북대

북학파를 다룬 논문이 4편인데, 이 중에서 홍대용과 관련된 글이 2 편, 박지원과 관련된 논문이 2편이다. 홍대용의 경우에는 중화의 해체라는 문제를 일본 학자와 비교하였고, 나머지는 그의 화상에 관한 것이다. 박지원의 경우에는 『열하일기』를 통하여 당시 청나라 학술과의 관련성을 다루었고, 연암집의 문헌학적인 고찰이라는 주제로 박사논문이 제출되었다.

## 4) 정약용(丁若鏞)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Hoang, Minh Quan	Initial research on Tasan Jeong Yak-Yong's attitude of Zhu Xi's learning through his interpretation of the Confuciaan classics: The case of Daxue Gongyi(大學公議)	다산학 30권	다산학술문화재단
2	김영우	레귀돈(黎貴惇)과 정약용의 정치사상 비교	다산학 30권	다산학술문화재단
3	전성건	레귀돈의 기학과 정약용의 상제학	다산학 30권	다산학술문화재단
4	정소이	레귀돈의 「대학해(大學解)」와 정약용의 『대학공의(大學公議)』 해석 비교	다산학 30권	다산학술문화재단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5	방인	다산(茶山)의 양호작괘법(兩互作卦法)	다산학 30권	다산학술문화재단
6	김평원	정약용이 설계한 거중기(擧重機)와 녹로의 용도	다산학 30권	다산학술문화재단
7	박석무	조선 실학사상의 흐름 : 율곡(栗谷)에서 다 산(茶山)으로	다산학 30권	다산학술문화재단
8	김태영	『경세유표』의 '신아구방(新我舊邦)'론	다산학 31권	다산학술문화재단
9	조성을	『경세유표(經世遺表)』 연구의 제문제	다산학 31권	다산학술문화재단
10	김문식	다산 정약용의 인재선발론	다산학 31권	다산학술문화재단
11	백민정	『경세유표』와 정약용의 통치론 : 신분 질서 와 예치(禮治) 문제를 중심으로	다산학 31권	다산학술문화재단
12	김선희	다산 정약용의 유가적 공적 세계의 기획 : 『경세유표』를 중심으로	다산학 31권	다산학술문화재단
13	전성건	다산 정약용의 경학과 『경세유표』	다산학 31권	다산학술문화재단
14	전상욱	「목민심서」를 통해서 본 다산 정약용의 민고 운영 개선론	다산학 31권	다산학술문화재단
15	김평원	정약용이 설계한 유형거(游衡車) : 그 원리 와 사용법	다산학 31권	다산학술문화재단
16	오수록	다산 정약용의 실천적 덕론(德論) 고찰(考察)	유교사상문화연 구 69권	한국유교학회
17	서근식	성호학파에서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역학(易學)의 성립과정(Ⅲ)-이익, 신후담 의 역학에서 정약용의 역학으로-	한국철학논집 53권	한국철학사연구회
18	김혜련	다산학(茶山學)에 관한 민족주의적 관점 고찰	동서철학연구 85권	한국동서철학회
19	이병유	정약용의 『사례가식(四禮家式)』과 가례(家禮) 인식: 『주자가례(朱子家禮)』와 비교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83권	조선시대사학회
20	정호훈	조선후기 새로운 국가구상의 전통과 『경세 유표(經世遺表)』	동방학지 제180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1	김용흠	『경세유표』를 통해서 본 복지국가의 전통	동방학지 제180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2	김선희	근대 전환기 다산 저술의 출판과 승인	동방학지 제180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3	김태희	다산 정약용의 군주론과 『경세유표 』	동방학지 제181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24	백민정	「흠흠신서(欽欽新書)」에 반영된 다산(茶山) 의 유교적 재판 원칙과 규범-「경사요의 (經史要義)」의 법리(法理) 해석 근거와 의 미 재검토	대동문화연구 99권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5	정민	다산(茶山) 『비어고(備禦考)」의 행방	대동문화연구 99권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6	고승환	다산 정약용의 충서론(忠恕論)에 관한 재 해석-수양론과의 정합성 탐구	철학논집 제49권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27	이진형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의 향존사회인 식(鄕村社會認識)과 개혁(改革) 구상(構想)	박사논문	연세대
28	김만수	다산 정약용의 위민 변통사상	박사논문	영남대
29	황민선	다산 정약용의 원림시 연구	박사 <del>논문</del>	전남대
30	이정숙	다산 정약용의 혼례관 연구	박사 <del>논문</del>	원광대
31	박창식	정약용(丁若鏞), 대진(戴震), 오규소라이(荻 生徂徠)의 탈주자학적 도덕철학 비교 연구	박사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약용을 다룬 연구가 31편으로 가장 많은데, 이 중에서 철학 분야 9편, 경학 5편, 경세 14편, 문학 1편, 기타 2편이 발표되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가 연구되고 있다. 특히 『경세유표』와 베트남 유학자인 黎貴惇과의 비교를 집중하여 조명한 점이 특징이다.

## 5) 최한기(崔漢綺)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채진풍	동아시아 실학 속의 형이상학-방이지 (方以智), 최한기(崔漢綺)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4권	한국실학학회
2	이인화	최한기의 기학 체계에서 인간 · 인민 · 천하인	양명학 48권	한국양명학회

최한기를 연구한 논문은 2편으로 방이지와의 비교를 통하여 실학의 형이상학을 다루었고, 기학(氣學) 체계에서 나타나는 인간관을 다루었다.

#### 6) 기타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헌창	근세 실학의 선구자이자 실천자인 김육 (金堉)(1580~1658)	한국실학연구 33권	한국실학학회
2	완재동	레귀돈(黎貴惇)의 개혁정신(改革精神)	한국실학연구 34권	한국실학학회
3	함영대	레귀돈의 『성모현범록(聖模賢範錄)』에 나 타난 맹자 해석	다산학 30권	다산학술문화재 단
4	구만옥	『사연고(四沿考)』와 『도로고(道路考)』를 통해서 본 신경준(申景濬)의 조석설(潮汐 說)	한국실학연구 34권	한국실학학회
5	김동민	심대윤(沈大允) 『춘추사전속전(春秋四傳 續傳)』의 탈성리학적 『춘추』이해	한국철학논집 52권	한국철학사연구 회
6	선지수	이토 진사이의 실학-다원성과 일상성의 사상	한국실학연구 34권	한국실학학회
7	송재소	18세기 베트남과 조선의 학문적 동향	다산학 30권	다산학술문화재 단
8	조성을	서피(西陂) 유희(柳僖)의 생애(生涯)와 학 문(學問)	한국실학연구 34권	한국실학학회

기타로 분류한 인물이나 주제에 대한 논문이 8편이 발표되었다. 김 육과 유희의 학문을 다루었으며, 2편은 베트남 유학자 레귀돈의 학문을 다루었고, 다른 한 편은 18세기 조선과 베트남의 학술 동향을 검토하였다. 일본 학자 이토 진사이의 실학 정신을 다룬 논문이 1편, 신경준의 과학사상을 다룬 것, 특히 심대윤의 『춘추』에 관한 이해를 다룬 논문이 발표되었다.

# 3. 주제별 분류

그리고 주제별로 분류하면 경학 관련 논문이 9편, 철학 분야가 19편, 정치와 경제 분야가 15편, 기타 분야가 6편 등이다. 실학의 철학과 사 상, 그리고 정치와 경제 분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점은 주목 할 만하다. 경학 관련 연구도 예년과 비슷하게 꾸준하게 연구되고 있 다.

### 1) 경학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최정준	실용과 과학에 기초한 성호(星湖) 이익(李 瀷)의 봉침육합(縫針六合)이론 - 『역경질서 (易經疾書)』의 선갑후갑(先甲後甲)· 선경후 경(先庚後庚)의 해석과 연관하여	한국실학연구 34권	한국실학학회
2	정소이	레귀돈의 「대학해(大學解)」와 정약용의 『대학공의(大學公議)』 해석 비교	다산학 30권	다산학술문화재단
3	방인	다산(茶山)의 양호작괘법(兩互作卦法)	다산학 30권	다산학술문화재단
4	전성건	다산 정약용의 경학과 『경세유표』	다산학 31권	다산학술문화재단
5	김동민	심대윤(沈大允) 『춘추사전속전(春秋四傳續 傳)』의 탈성리학적 『춘추』 이해	한국철학논집 52권	한국철학사연구회
6	서근식	성호학파에서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역 학(易學)의 성립과정(川)-이익, 신후담의 역 학에서 정약용의 역학으로	한국철학논집 53권	한국철학사연구회
7	이병유	정약용의 『사례가식四禮家式』과 가례(家禮) 인식: 『주자가례(朱子家禮)』와 비교를 중심 으로	조선시대사학보 83권	조선시대사학회

경학을 다룬 논문은 7편인데, 그 중에서 역학 분야를 다룬 논문이 3 편, 『춘추』1편, 『대학』1편, 예학 관련 1편, 다산의 경학과 『경세유표』 와의 관련성을 다룬 논문이 1편이다. 역학 관련 논문이 전년에 이어서 계속 많은 편이며, 성호의 역학이 1편, 다산 1편, 성호와 다산의 역학의 관련성을 다룬 논문이 1편이다. 심대윤의 『춘추』에 관해 오랜만에 연구가 발표되었다. 성호와 심대윤을 제외하면 여전히 정약용의 경학에 대한 논문이 5편으로 가장 두드러진다.

## 2) 철학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최정연	성호 이익의 뇌낭설 수용 방식에 관한 검토 - 성호의 사칠설과 『주제군징』의 뇌낭설을 중심 으로	한국실학연구 33권	한국실학학회
2	이경구 이예안	중화(中華) 해체의 두 가지 길 -홍대용과 스 기타 겐파쿠 비교 연구	한국실학연구 33권	한국실학학회
3	정구복	반계 유형원의 학문세계와 그 영향	한국실학연구 34권	한국실학학회
4	채진풍	동아시아 실학 속의 형이상학-방이지(方以智), 최한기(崔漢綺)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4권	한국실학학회
5	선지수	이토 진사이의 실학—다원성과 일상성의 사 상	한국실학연구 34권	한국실학학회
6	구만옥	『사연고(四沿考)』와 『도로고(道路考)』를 통해 서 본 신경준(申景濬)의 조석설(潮汐說)	한국실학연구 34권	한국실학학회
7	송재소	18세기 베트남과 조선의 학문적 동향	다산학 30권	다산학술문화재단
8	Hoang Minh Quan	Initial research on Tasan Jeong Yak-Yong's attitude of Zhu Xi's learning through his interpretation of the Confuciaan classics: The case of Daxue Gongyi(大學公議)	다산학 30권	다산학술문화재단
9	전성건	레귀돈의 기학과 정약용의 상제학	다산학 30권	다산학술문화재단
10	함영대	레귀돈의 『성모현범록(聖模賢範錄)』에 나타 난 맹자 해석	다산학 30권	다산학술문화재단
11	박석무	조선 실학사상의 흐름 : 율곡(栗谷)에서 다산 (茶山)으로	다산학 30권	다산학술문화재단
12	오수록	다산 정약용의 실천적 덕론(德論) 고찰(考察)	유교사상문화 연구 69권	한국유교학회
13	이인화	최한기의 기학 체계에서 인간 · 인민 · 천하인	양명학 48권	한국양명학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4	이현식	「열하일기」「심세편」, 청나라 학술과 사상에 관한 담론	동방학지 제181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5	고승환	다산 정약용의 충서론(忠恕論)에 관한 재해 석-수양론과의 정합성 탐구	철학논집 제49권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16	박창식	정약용(丁若鏞), 대진(戴震), 오규소라이(荻生 徂徠)의 탈주자학적 도덕철학 비교 연구	박사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철학을 다룬 논문은 총 16편이다. 이 중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다산의 철학사상에 관한 논문이 6편이며, 그 가운데 베트남 학자인 레귀돈과의 비교 논문이 있다. 그리고 레귀돈의 맹자 해석에 대한 한국 학자의 논문 1편, 다산『대학공의』에 관한 베트남 학자의 연구 1편, 18세기조선과 베트남의 학문 동향에 관한 연구 1편 등 베트남 유학에 관한 포명이 두드러진다. 다산과 관련하여 다산과 대진, 오규 소라이를 비교한 박사논문이 제출되었다. 또한 최한기와 방이지를 비교하면서 동아시아 실학에서의 형이상학을 통합적으로 보려는 논문이 있으며, 홍대용과 일본 학자를 비교하면서 중화주의 극복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와같이 올해는 다른 나라 학자와의 비교 연구가 좀 많은 편이다.

## 3) 정치·경제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영우	레귀돈(黎貴惇)과 정약용의 정치사상 비교	다산학 30권	다산학술문화재단
2	김평원	정약용이 설계한 거중기(擧重機)와 녹로의 용도	다산학 30권	다산학술문화재단
3	김태영	『경세유표』의 '신아구방(新我舊邦)'론	다산학 31권	다산학술문화재단
4	조성을	『경세유표(經世遺表)』 연구의 제문제	다산학 31권	다산학술문화재단
5	김문식	다산 정약용의 인재선발론	다산학 31권	다산학술문화재단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6	백민정	『경세유표』와 정약용의 통치론 : 신분 질서 와 예치(禮治) 문제를 중심으로	다산학 31권	다산학술문화재단
7	김선희	다산 정약용의 유가적 공적 세계의 기획 : 『경세유표』를 중심으로	다산학 31권	다산학술문화재단
8	전상욱	『목민심서』를 통해서 본 다산 정약용의 민고 운영 개선론	다산학 31권	다산학술문화재단
9	김평원	정약용이 설계한 유형거(游衡車) : 그 원리 와 사용법	다산학 31권	다산학술문화재단
10	김혜련	『다산학』(茶山學)에 관한 민족주의적 관점 고찰	동서철학연구 85권	한국동서철학회
11	정호훈	조선후기 새로운 국가구상의 전통과 『경세 유표(經世遺表)』	동방학지 제180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2	김용흠	『경세유표』를 통해서 본 복지국가의 전통	동방학지 제180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3	김태희	다산 정약용의 군주론과 『경세유표』	동방학지 제181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4	백민정	「흠흠신서(欽欽新書)」에 반영된 다산(茶山) 의 유교적 재판 원칙과 규범 - 「경사요의(經 史要義)」의 법리(法理) 해석 근거와 의미 재 검토	대동문화연구 99권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5	정민	다산(茶山) 『비어고(備禦考)』의 행방	대동문화연구 99권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6	완재동	레귀돈(黎貴惇)의 개혁정신(改革精神)	한국실학연구 34권	한국실학학회
17	정용건	반계(磻溪) 유형원(柳馨遠)의 역사의식과 동 국사(東國史) 서술 구상-『반계잡고(磻溪雜 藁)』 소재 기록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4권	한국실학학회
18	손혜리	반계가 바라본 명청 교체와 명 유민	한국실학연구 34권	한국실학학회
19	정성희	반계(磻溪) 경세학(經世學)의 계승과 과거제 개혁론	한국실학연구 34권	한국실학학회
20	이진형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의 향촌사회인식 (鄕村社會認識)과 개혁(改革) 구상(構想)	박사논문	연세대
21	김만수	다산 정약용의 위민 변통사상	박사논문	영남대
22	이정숙	다산 정약용의 혼례관 연구	박사논문	원광대

경세론에 해당하는 정치와 경제 등을 다룬 논문은 22편으로 다른 분야보다 많은 편이다. 이 중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정약용의 경세사상을 다룬 논문이 가장 많으며, 특히 『경세유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그 외에도 다산에 관한 박사논문이 3편이나 발표되었으며, 베트남유학자 레귀돈과의 연구에도 경세사상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다산의거중기, 도르래, 무거운 물건을 싣던 수레인 유형거 등에 관한 연구도는에 띈다. 그리고 반계 실학의 특집에서도 반계의 경세사상이 다루어졌다.

#### 4) 기타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신채용	『성호전집(星湖全集)』 묘도문자(墓道文字)를 통해서 본 이익(李瀷)의 남인의리(南人義理)	조선시대사학보 80권	조선시대사학회
2	이헌창	근세 실학의 선구자이자 실천자인 김육(金 堉)(1580~1658)	한국실학연구 33권	한국실학학회
3	만진초	17세기 한중 실학자의 교육개혁안 비교연 구-유형원과 황종희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3권	한국실학학회
4	임형택	17세기 문명적 위기의식과 실학-반계(磻溪) 유형원(柳馨遠)의 문집 발간에 즈음해서	한국실학연구 34권	한국실학학회
5	김승대	반계 유형원의 가계 분석	한국실학연구 34권	한국실학학회
6	양승목	반계 유형원 초상(抄象) – 생애기록물에 대한 통시적 이해	한국실학연구 34권	한국실학학회
7	조해숙	반계 유형원의 시조 한역에 대하여	한국실학연구 34권	한국실학학회
8	이동희	부안지역 반계 유형원 유적보존과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한국실학연구 34권	한국실학학회
9	박현규	담헌(湛軒) 홍대용(洪大容) 화상(畵像)의 종 류와 정본 선정에 관한 고찰	한국실학연구 33권	한국실학학회
10	조성을	서피(西陂) 유희(柳僖)의 생애(生涯)와 학문 (學問)	한국실학연구 34권	한국실학학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1	김선희	근대 전환기 다산 저술의 출판과 승인	동방학지 제180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2	현안옥	박지원 『연상각선본』의 개작 양상과 그 의미	박사 <del>논문</del>	전북대
13	황민선	다산 정약용의 원림시 연구	박사 <del>논문</del>	전남대

기타로 분류한 13편에는 다산의 저술 출판, 박지원의 문집에 관한 연구가 주목되며, 유형원, 김육, 유희 등의 연구도 실학의 외연을 넓히 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4.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2017년 학술지에서 실학에 관한 특집이 세 주제로 기획되었다. 그 중에서 〈한국실학연구〉 34권에서는 '반계 유형원과 동아시아 초기 실학'이라는 주제로 특집을 실었다. 이 특집에 실린 논문이 무려 13편이다. 다산학 30호에서는 베트남 유학자인 레귀돈과 정약용의 사상을비교하는 특집을 실었다. 그리고 〈다산학〉 31호와〈동방학지〉 180집에서 동시에 정약용의 『경세유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특집을 실었다. 이를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반계 유형원과 동아시아 초기 실학'에서 임형택은 「17세기 문명적 위기의식과 실학 - 磻溪 柳馨遠의 문집 발간에 즈음해서」라는 기조강연 을 통하여 17세기 명청교체기의 상황에서 일군의 학자들은 이를 문명 의 위기로 진단하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문에 열중하였 는데, 그 결과로 실학이라는 학풍이 형성되었다고 규정하였다. 임형택 은 이러한 학풍의 1세대에 속하는 학자로 조선에서는 유형원을 중심을 두고, 중국실학의 1세대에 속하는 고염무(顧炎武)와 황종희(黃宗羲)를 관련지어서 초기 실학의 학풍을 논하였다.

다음으로 정구복은 「반계 유형원의 학문세계와 그 영향」이라는 기조강연에서 유형원의 현전하는 두 책 중에서 『동국여지지』는 우리나라 전국의 군현에 대한 인문·지리학적 저술(9권)이고 다른 한 권은 국가통치 제도론인 『반계수록』 26권이라고 소개하였다. 그는 『동국여지지』는 조선 후기에 큰 학문경향을 띈 역사지리학 발전에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고 보았고, 『반계수록』은 국가개혁안으로 이는 국가경영학이란 학문 분야를 새롭게 개척한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그의 역사지리학은 전라도 순창에 살았던 신경준(1712~1781)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그의 국가경영학은 성호 이익(1681~1763), 다산 정약용(1762~1836)에의 계승 발전하였고, 안정복(1712~1791), 홍계희(1703~1771) 등에게 큰 학문적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

정용건은「반계(磻溪) 유형원(柳馨遠)의 역사의식과 동국사(東國史) 서술 구상 - 『반계잡고(磻溪雜藁)』소재 기록을 중심으로」에서 유형원 은 주희(朱熹)의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을 역사 서술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동국사 서술에서 '성리학적 의리론'이라는 기 본 원칙을 제시하였다고 보았다. 이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를 연구한 6 편의 논문이 더 수록되어 있다.

정약용의 『경세유표』는 다산학 31호와동방학지 180집에서 동시에 특집으로 다루었다. 김태영은 「『경세유표』의 신아구방新我舊邦론」에서 정약용이 『경세유표』에서 강력한 왕권에 의한 정치적 결단으로 낡은 국가 체제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변법을 통하여 '신아구방(新我舊

邦)'할수 있는 정치개혁론을 제시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조성을은「『경세유표經世遺表』연구의 제문제」에서『경세유표』연구의 쟁점들을 10가지로 정리하여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백민정은「『경세유표』와 정약용의 통치론: 신분 질서와 예치禮治 문제를 중심으로」에서 정약용이 구상하였던 통치체제와 구조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정약용은 천리(天理)와 인정(人情)에 부합하는 예(禮)를 강조하여 그에 따른 상하귀천 등급에 따른 차등화 원리에 알맞은 통치 체제를 주장하였다고 보았다

김선희는 「다산 정약용의 유가적 공적 세계의 기획: 『경세유표』를 중심으로」에서 정약용이 주장하는 군권과 민권의 문제를 다루었다. 그리고 전성건은 「다산 정약용의 경학과 『경세유표』」에서 정약용의 경학 방법론과 경학의 지향점을 예법과 예치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 것이 『경세유표』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보았다. 그는 『경세유표』가 『주례』를 모범으로 삼아 자신의 시대에 적용하기 위해 작성하여 '신아구방'을 위한 다산의 기획이라고 보았다.

〈동방학지〉제180집에서도 『경세유표(經世遺表)』를 특집으로 다루었다. 정호훈은 「조선후기 새로운 국가구상의 전통과 『경세유표(經世遺表)』」에서 『반계수록(磻溪隨錄))』의 전통을 계승하여 정약용이 새로운 국가 통치체제를 구상하였다고 보고, 『경세유표』에서 토지제도의 개혁을 주장한 것은 당시 농업과 농민이 처한 현실을 개선하려는 새로운 기획이라고 평가하였다.

김용흠은「『경세유표(經世遺表)』를 통해서 본 복지국가의 전통」에서 정약용은 당시의 문란했던 토지제도와 환곡 제도 등을 개혁하여 민

생을 안정시켜 백성의 자치능력을 향상시켜서 국가를 강화하려는 전 반적인 개혁을 주장하였다고 보았다. 이러한 다산의 생각은 사회주의 적이지도 않고, 자유방임주의에 입각한 자본주의적 국가를 지향하지 도 않았으니, 이는 오늘날의 복지국가 유형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였다.

김태희는 「다산 정약용의 군주론과 『경세유표(經世遺表)』」에서 『원목』, 『탕론』, 『일주서극은편변』은 일관성을 가지는데, 군주의 기원 및 권력의 정당성, 군주 교체의 정당성과 한계, 그리고 현명한 신하의 중요성을 차례대로 강조하였다. 『경세유표』는 군주의 소임과 바람직한 군주상을 제시한 것으로, 앞의 세 논설과는 그 초점이 다르다. 『경세유표』 는 황극(皇極)으로 표현되는 강력한 군주와 군주 중심의 관료 체제를 지향하지만 이때의 군주도 유학의 이상적인 군주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베트남 유학자인 레귀돈(黎貴惇, 1726~1784)에 관한 특집이다. 완재동은 '반계 유형원과 동아시아 초기 실학'이라는 특집에서 「레귀돈(黎貴惇)의 개혁정신(改革精神)」을 발표하였다. 레귀돈은 상소문에서 치국제도와 관련하여 유학자를 선발하는 것, 관직, 국가정치경제, 국민호적 등 여러 제도의 개혁에 대해서 제안을 하였을 뿐 아니라 예와 풍속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그의 개혁 정신은 인치(仁治)와 법치(法治)를 결합시킴으로써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김영우는 「레귀돈과 정약용의 정치사상 비교」에서 "레귀돈과 정약용의 정치사상은 통치자의 적극적 역할과 정치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정약용이 심성론을 통치론과 구분하여 논의하는 것과는 달리 레귀돈은 심성론을 통치론과 독립하여 논의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차이점 또한 발견된다. 이러한 차이는 레귀돈이 통치자의 도덕 수양 그 자체 보다는 일의 성과를 보다 중시하고 있기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약용은 경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경세의 성공은 반드시 위정자의 도덕 실천을 전제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었기에 심성론 또한 중요한 탐구의 대상이었다."고 보았다.

전성건은 「레귀돈의 기학과 정약용의 상제학」에서 "레귀돈은 상수학을 기반으로 한 기철학의 입장에서 천문, 지리, 인사 등을 추산과 측량의 방식을 적용하여 통합적으로 파악하려고 하였고, 정약용은 훈고학, 성리학, 고증학의 장점을 흡수하여 육경사서를 재해석하고, 그를 근거로 마련된 개혁안들을 중심으로 조선왕조의 국가체계를 일신시키려고 하였다"고 보았다. 이들은 천주학에 대한 이해 방식에 차이를 보이는데, "레귀돈은 천주의 기원을 자신의 이론으로 정당화하는 한편, 인륜을 경시하는 생활태도에 대해서는 긍정하지 않는다. 반면, 정약용은 천주학을 상제학으로 전환시키는데, 이는 천주학에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이다. "고 보았다.

정소이는 「레귀돈의 『대학해(大學解)』와 정약용의 『대학공의(大學 公議)』 해석 비교」에서 레귀돈의 『대학해(大學解)』는 주로 주희의 『대학 장구』의 해석을 따랐으나 '치지(致知)'의 지(知)를 양지(良知)로 풀었고, 효제자의 주체를 주로 군주로 보았으며, 형이상학적 해석을 가급적 배 제한 점이 눈에 띄며, 정약용의 『대학공의』는 주희의 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격물치지를 제외하고 삼강령 육조목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구상을 제시하여 『대학』의 본래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였다고 보았다.

함영대는 「레귀돈의 『성모현범록(聖模賢範錄)』에 나타난 맹자 해석」에서 레귀돈은 『맹자』의 핵심 내용에 대한 뚜렷한 관심이나 입장을

제기하지 않았고, 다만 "레귀돈은 『맹자』에 대한 채록에서 『맹자』 그 자체의 본질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데 그다지 주의하지 않고, 자신의 안목에서 요긴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선별했다."고 평가하였다.

이외에도 김동민의 「심대윤(沈大允) 『춘추사전속전(春秋四傳續傳)』 의 탈성리학적 『춘추』이해」는 조선 말기 『춘추』에 관한 연구를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 5. 평가와 전망

2017년도 조선후기 실학에 관한 연구 논문은 총 58편이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크게 변한 점은 없다. 인물별 연구에서 보면 여전히 정약용에 관한 연구가 절반을 넘어서 압도적이라는 측면에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포착된다. 다른 실학파나 인물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어진다는 측면에서는 다행이다. 주제별 연구에서는 철학과 경세학에 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면서 경학을 비롯한 다른 분야의 연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17년도는 다양한 특집이 기획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유형원을 다양한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실학의 원류에 대한 학문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정약용의 『경세유표(經世遺表)』에 대한 다각도의조명은 두 학술잡지에서 동시에 기획되어 다산 학문을 포괄적이면서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베트남 유학자 레귀돈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특별한 연구 성과가 있었다.

이는 실학 연구를 통시대적인 안목으로 이끈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라고 할수 있다. 모든 학문이 그렇듯이 해당 학문은 그 시대의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조선의 실학도 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동아시아, 세계사적 시각에서 조명될 날을 기대하면서 해외 학자들과의 비교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간헐적으로 연구 업적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당시의 주류 학문인 성리학과의 심층적인 연구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이분야의 연구는 실학을 위해서나 성리학, 그리고 당시 역사와 사상을이해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꾸준한 연구를 기대해본다. 그리고 실학 사상가들 간의 비교 연구도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다. 실학의 시대적 연관 문제가 어느 정도 연구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심층적인 부분에서는 밝히지 못한 측면이 많다. 실학이역사적인 맥락에서 잘 이해될 수 있는 연구와 역사적 평가나 현대적의의에서도 꾸준한 연구가 있기를 기대한다.